

동서석유화학 AN 생산중단 “파문”

코스트 높아 수익성 하락 이유 ... 암모니아는 톤당 300달러로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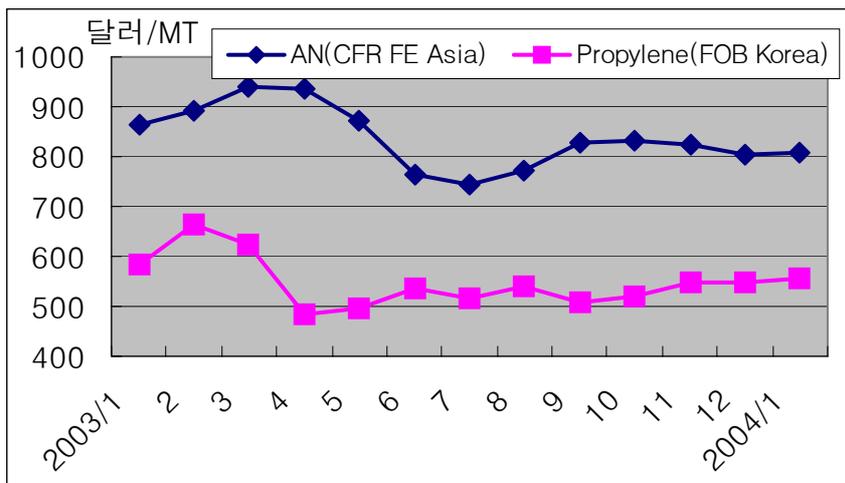
동서석유화학이 2004년 1월7일 No.2AN(Acrylonitrile) 7만톤 플랜트 가동중지에 이어 9일에는 No.3 20만톤 플랜트의 가동률 조정에 들어갔다.

2003년부터 프로필렌(Propylene)과 암모니아 가격폭등으로 AN 생산량 조절을 고심해 왔던 동서석유화학은 2004년 1월7일부터 1차로 No.2(7만톤) 플랜트를 1주일 동안 Shut Down했고, 9일부터 No.3(20만톤) 플랜트의 가동률을 10% 낮춰 AN을 생산하고 있다.

동서석유화학 관계자는 “프로필렌과 암모니아의 가격폭등이 가동률 조정의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국내 AN 생산기업은 태광산업(생산능력 25만톤)과 동서석유화학(생산능력 27만톤) 과점체제로 태광산업은 자체 프로필렌 생산라인을 갖춘 반면 동서석유화학은 프로필렌을 전량 구매해 AN을 생산한다.

프로필렌은 2003년 12월 기준으로 FOB Korea 톤당 22.5달러 올랐으며, 암모니아는 2003년 톤당 150달러에서 2004년 1월 톤당 300달러로 2배 폭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AN 및 Propylene 가격추이



프로필렌은 나프타(Naphtha) 및 PP(Polypropylene) 가격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1/4분기에는 가격 하락할 조짐이 없다는 점에서 동서석유화학의 가동률 조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AN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19>